



카자흐 동계아시안게임 내일 개막

종합 3위 수성 '힉찬 스타트'



5개 종목 150명 출전 두자릿수 금 도전
스피드스케이팅·쇼트트랙 '무더기 메달'
빙상 강국 넘어 '겨울 스포츠 강국' 도약

지난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빙상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 동계 스포츠가 30일부터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알마티에서 열리는 제7회 동계아시안게임에서 3위 수성에 도전한다.

한국은 5개 종목에서 150명으로 선수단을 꾸려 두자릿수 금메달 획득과 종합 3위를 목표로 내걸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26개국에서 11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내달 6일까지 8일간 펼쳐지며 아스타나와 알마티 등 두 곳에서 경기가 열린다.

30일 개막식이 열리는 아스타나에서는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 등 빙상 종목이 주로 열리고, 내달 6일 폐막식이 펼쳐지는 알마티에서는 스키 등 눈 위에서 열리는 경기가 마련된다.

북경 카자흐스탄 견제 속 3위 수성 도전

개회국 카자흐스탄은 겨울 스포츠 강국이지만 동계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에 밀려 한 번도 종합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카자흐스탄은 훌이라는 이점을 안고 사상 첫 종합 1위까지 노리고 있다.

일본과 치열한 다투

스키(금메달 27개)와 바이애슬론(7개) 등에 강한 카자흐스탄은 한국이 강한 컬링, 스피드스케이팅 1000m과 일본이 독주하는 알파인 스키 회전과 대회전 등을 빼 버렸다. 대신 스키오리엔티어링(8개), 밴디(1개) 등을 추가해 무더기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한국은 종합 순위에서 지난 창춘 대회(금메달 9개)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것을 당연 과제로 삼고 있다.

겨울 스포츠에서도 감세를 보이는 중국이 2위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96년

하얼빈 대회 이후 열린 4차례 동계아시안게임에서 3번이나 종합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겨울 스포츠에서도 강하다.

여자 쇼트트랙 간판스타 왕멍이 출전하지 않지만 저우양이 견제하며,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는 왕웨이싱과 유징이 한국의 이상화와 메달 색깔을 다툰 예정이다. 또 중국은 피겨 페어의 광청-퉁지안(세계랭킹 2위)의 실력이 돋보인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동계 종목이 강한 일본과 3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창춘 대회에서 알파인 스키 4종목을 싹쓸이한 일본은 스키,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강국이다. 알파인 스키 종목 조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됐지만 무라카미 가나코가 버틴 피겨와 가토 조지, 나가시마 게이치로 등이 출전하는 스피드스케이팅의 선전을 믿고 있다.

▶'메달밭' 쌍두마차'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에 기대

한국은 2007년 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모두 판 컬링과 이규혁(33·서울시청)이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스피드스케이팅 1000m가 빠진 게 아쉽다.

전통적인 '메달밭'인 쇼트트랙에 기대를 걸면서 새로운 효과 종목으로 떠오른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무더기 메달을 노린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영웅인 모태범(22), 이상화(22), 이승훈(23·이상 한국체대)이 전력의 핵. 모태범, 이강석(26·한국체대)과 이상화가 나서는 500m는 페이스만 잘 유지하면 금메달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상화와 모태범이 최근 발목 등을 다친 게 변수다.

1500m에서는 모태범과 '만형' 이규혁이 금메달을 노린다. 이규혁은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낸 3연패에 성공한다. 이규혁

은 최근 세계스프린트 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 4번째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등 상승세다.

남자부 장거리에서는 이승훈의 독주가 예상된다. 처음 도입된 장거리 오픈레이스인 메스 스타트와 팀 추월에서도 한국이 강체라 이승훈은 잘하면 4관왕까지 차지할 수 있다. 쇼트트랙은 올 초 터진 '팜파미 파문'을 딛고 빠르게 전력을 추슬렀다.

이승훈 4관왕 도전

부정을 방지하고자 생소한 타임레이스(일정 구간의 통과 속도를 겨루는 방식)를 도입해 선수를 뽑았는데 최근 월드컵 3~4차 대회에서 12개의 금메달을 휩쓸었다.

이호석(25·고양시청), 성시백(24·울진시청) 등 기존 대표 선수뿐 아니라 노진규(19·경기도)와 김담민(16·부림동) 등 어린 선수들도 금메달을 따내며 신구 조화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한 유망주 엄천호(19·한체대)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스키는 알파인 스키의 기대주 정동현(23·한체대)을 비롯해 남자 스키점프와 여자 프리스타일의 서정화(21·남가주대)가 메달권 진입에 도전하고 있다.

정동현은 주종목인 대회전이 빠진 가운데 활강과 슈퍼대회전, 슈퍼복합 등에 출전한다. 대회 경험이 적은 활강을 뺀 슈퍼대회전과 슈퍼복합에서는 금메달 획득도 가능하다.

영화 '국가대표'로 잘 알려진 남자 스키점프팀은 2009년 하얼빈 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휩쓴 주역인 최흥철(30), 최용직(29), 김현기(28), 강철구(27·이상 하이원)를 앞세워 메달 사냥에 나선다. /연합뉴스



스피드스케이팅의 만형 이규혁



'밴쿠버 영웅' 스피드스케이팅 500m 모태범



쇼트트랙 기대주 성시백



한국의 '메달밭' 쇼트트랙은 만형 이호석을 앞세워 남녀 1500m 동반 금메달을 노린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auction and service advertisement.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Real estate investment and development services advertisement.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Real estate agency advertisement for rental services.

대인동삼일부동산. Real estate agency advertisement for various services.